

# 01

## 한-중 통상 환경속 “창업단계기업과 협업”

### Innovation with Start Up

백필호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플랫폼비즈니스팀 팀장

KOREA  
CHINA



한-중 FTA로 인해 한국 기업의 중국으로의 진출은 향후 Lean<sup>①</sup>(쉽고)과 Fast(빠른)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석 정권 시작과 함께 등장한 “중궈명(차이나드림)” 정책을 통해 3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그 혁신적 발전속에 국민의 “위더명(나의꿈)”이 이루어지는 일거양득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제조업과 융합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창업단계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며, 한국 기업의 중국에서의 창업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고에서는 FTA 환경하에서 현재 중국의 제조업 및 창업단계기업의 산업 환경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전략의 필요성을 논해 보고자 한다.

① 영어 단어의 뜻은 “절약”, “기대다”라는 뜻이지만 창업분야에서 “쉬운”의 의미로 통상적으로 사용됨.

# 01

## “중귀명 워더명”

중국 유학시절에 구시가지가 현대화 되는 곳을 “빠잔”<sup>㉠</sup>이라고 불렀다. 휴일에 “빠잔”지역으로 가면 유학생들이 즐비했다. 마치 주중에는 중국 문화에 있다가, 모국의 문화를 찾으러 온 것 같았다.

주중에는 학교 식당과 매점에서 중국 음식을 먹고 물건을 소비 하다가 “빠잔”지역에 가면 한국관에 들어서서 한국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곤 했었다. 그곳에는 항상 소비했던 것들이 있어서 선택의 결정이 빠르고 쉬웠었다.



**1.3 billion** Population  
1st most populous country on earth

최근 창업단계기업 및 대중소기업의 ICT 분야 정책, 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해 중국과 업무를 하다보면 지금 중국의 “빠잔”은 시진핑 정권 시작과 함께 등장한 중귀명(차이나드림) 정책을 통해 3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고 그 혁신적 발전 속에 국민의 “워더명(나의꿈)”이 이루어지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예전의 중국의 “빠잔”이 2차 산업혁명의 전력, 노동, 대량생산 등의 발전이었다면, 지금은 ICT, SW, 자동화 등의 3차~3.5차 산업혁명의 화두로 부상하였다.

# 02

## 중국의 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 + “창커(創客) 플러스”

작년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모든 산업 분야의 국가 주도적인 전방위적 전략으로 중국 제조업의 향후 10년간 전략의 기본 축이며, ICT융합을 기반으로 제조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산업고도화 전략이다.

ICT 기반의 제조업은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며, 전통제조업이 신기술 지능 제조업으로 발전하는 제4차 산업혁명 이라고 할 수 있고 ICT와 융합된 신기술 지능시



㉠ 빠잔발전

대에서의 제조업은 새로운 시장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중국은 중국내 불균형 및 격차를 해결하고 수출, 투자, 소비 분야를 활성화 시켜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 하려고 정부 주도하에 산업고도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에서도 정부 주도하에 자국 기업의 공장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시도하는 리쇼어링(Reshoring)<sup>㉔</sup>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또한 제조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창커”<sup>㉕</sup>플러스 계획으로 리커창 총리는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부가 창업이 쉽고 빠르게 될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제도적으로도 혁신적 규제 철폐 및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 또한 중국이 창업단계기업 기반구축 지원을 통해 중국내 불균형 및 격차를 해결하고 수출, 투자, 소비 분야를 활성화 시켜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 주도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GDP와 인구수를 고려해 보아야 하지만, 통계적으로 중국의 창업 단계기업의 증가율은 글로벌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니콘 기업<sup>㉖</sup>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경제의 화두가 되는 ‘뉴노멀’<sup>㉗</sup>(New normal) 시대에 새로운 부상을 위해 ICT 기반의 제조업 전환에 정부지원, 투자를 지속적인 확대해 가며 과거보다 더 나은 중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질서를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

㉔ 해외에 있는 자국기업의 공장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㉕ 중국에서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내놓는 창업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메이커(Maker)를 중국식으로 번역한 용어로, 크리스 앤더슨의 저서 《메이커스》(2012)에서 유래 되었음. 창커는 확실적인 창업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취업난 타개와 경제 성장 동력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음  
㉖ 유니콘(unicorn)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하며, 스타트업 기업이 상장하기도 전에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이 되는 것은 마치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됨  
㉗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의미

# 03

## 한·중 FTA 활용전략 : Innovation with Start Up 전략

한·중 FTA를 조명해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양자간 가장 개방적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인데, 글로벌 3대 소비시장(미국, EU, 중국)과 FTA를 빠르게 이루어 내어 글로벌 내수시장과 네트워크 하는 한국은 대외의존도의 장벽을 FTA를 통해서 해소하였고 수출에 이어 투자, 소비 분야에 시장 확대까지 가능해졌다.

시장 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FTA가 시장의 변화를 산업간에서 산업내로 발전시켰고, 글로벌 내수시장으로의 빠른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역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산업 분야별로는 동종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은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글로벌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다.

FTA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ICT융합 중심의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 "창커 플러스"등 국가 정책지원을 통해 FTA에 소프트웨어적인 힘을 부가해 국내·외 내수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13억의 사용자가 FTA를 통해 도시화 및 글로벌화 되고 있고 문화장벽이 없으며 문화충격이 없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명 브랜드의 제품이 어느 나라의 제품인지?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시장은 글로벌화 되고 있다.”

글로벌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한·중 무역에 진입장벽이 낮아진 지금 시점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혁신적 전략이 필요하다. FTA가 필수불가결의 조건이었다면, 지금은 제조업과 융합한 ICT를 기반으로 Innovation with Start Up를 이용한 수출, 투자, 소비분야의 확대가 필수불가결한 혁신적 전략 이라고 할 수 있다.

FTA의 개방과 ICT융합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 모든 시장은 신기술지능사회가 되었으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는 사람과 사물에 영향을 주는 시장이 되었고, 대기업 생태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들어온 한국의 제조업 중심의 중소협력 기업은 혁신하지 않으면 이전 퇴출되는 시대가 되었다.

중국의 도전과 열정 정신을 가지고 있는 창의도전형 인재들이 대중소기업의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중국투자자들이 투자한 한국의 창업단계기업들이 글로벌을 대상으로 Power of Access를 시작하고 있다. 창업단계기업의 기술,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와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창업단계기업으로 서비스 분야로 사용자의 교통이 물리는 이유도 일맥상통한다. 현재 창업단계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제조업력이고 중소기업에게는 창업단계기업의 Lean(쉽고)과 Fast(빠른) 신기술 진입력이 필요하다. ICT 융합, SW R&D 창업단계기업의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창업단계기업들을 적극 활용하여 FTA에 날개를 달아야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생태계에서 대중소기업과 창업단계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진출을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과 창업단계기업에 R&D지원 규제개혁과 R&D지원정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때이다.

예를 들어, K-ICT글로벌선도전략 및 창업단계기업 지원사업(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해외서도 “천송이 코트”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는 공인인증기술을 개발·보급 등을 개선하여 외국의 접근성을 저해해 국내 웹사이트의 해외 진출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었던 비표준 전자금융거래환경이 개선된 사례(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은 ICT융합 산업을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반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 이라고 할 수 있다.

- 가. 한국 홈쇼핑 대기업이 중국 방송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이 방송·소비되고, 소비 고객의 정보를 한국의 창업단계기업이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큐레이션<sup>⑦</sup>하여 기업의 정보로 활용하는 시장
- 나. 한국 창업단계기업이 개발한 O2O 앱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제품들이 중국에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브 스크립션 커머스화<sup>⑧</sup>되어 전달되고, 결제되고, 배송되는 시장
- 다. 농·축·수산업이 창업단계기업의 ICT융합 기술과 연합하여 생산, 관리, 재배되어 최상의 제품을 중국 소비자에게 즉시 배달, 판매되는 시장

통상환경속에서 창업단계기업과 협업하여, Lean(쉽고), Fast(빠른)로 First Mover(선도)하는 효과를 통한 확대된 동반진출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 04

### 맺음말 Innovation with Start Up



한국은 정부의 지속적인 FTA 추진전략하에 미국, EU의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고 중국과의 FTA 역시 지난 2015년 12월 발효하였다. 한·중 FTA의 체결로 한국은 중국의 56개 민족, 13억의 사용자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특히, FTA 체결당시 한-중 FTA로 관세철폐의 개방수준은 낮지만, 양국간의 교역 규모가 커 관세철폐의 효과가 큰 협정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외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고용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는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한·중 FTA를 활용한 전략을 이용해 보는 것을 구상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큐레이션을 접목한 시장, 앱을 통한 신시장 개척 등의 방안을 활용하여 창업단계기업과 협업하여 혁신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중 FTA가 좀더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⑦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배포하는 일  
⑧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특정 상품들을 선별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참고 : 2016년 중국 수입규제 동향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올해 상반기, 중국의 수입규제 시행은 제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신규 반덤핑<sup>㉔</sup> 조사 착수 건은 2건, 상계관세<sup>㉕</sup> 및 세이프가드<sup>㉖</sup> 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중국의 반덤핑 조사 착수 건 : 2014년 2건, 2015년 5건
- 현재 중국이 시행중인 기타의 수입규제 조치로는 1)수입허가증, 2)수입쿼터, 3)중고기계전자설비 수입 금지 등이 있으나, 점차 수입제한 조치를 철폐·완화하는 추세

**[수입허가증 관리]**

- 중국은 수출입 및 외환관리를 위해 화물자동수입 허가증 제도를 시행해 오음
- 2016년 현재 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한 537개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 중

**[수입쿼터 관리제도]**

- 일부 농산물에 대해 중국은 수입쿼터 관리제도를 시행해왔으나, 현재 관세쿼터 관리제도로 변경하여 시행 중
- 2016년 상반기 기준, 밀 등 8개류 47개의 품목에는 \*활준세 시행 중  
\*(Sliding Duties;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적용)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금지]**

- 중국은 1998년부터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무부 대외 무역사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상반기 중국의 대표적인 간접 수입규제 정책은 해외직구 관련정책 변경과 문화컨텐츠 산업 규제 강화 및 분유관련 규제강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음

**[해외직구 관련정책 변경]**

- 올해 4월 8일부터 해외에서 B2C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전반적 세율 인상 및 검역·통관 관련 규제 강화

**[문화컨텐츠 산업 규제 강화]**

- 문화컨텐츠 산업 규제 강화
- 중국 광전총국, 7월 1일부로 해외 판권을 사들인 중국 방송사 프로그램의 황금시간대(19시 30분~22시 30분) 방영 횟수를 1년에 두 편으로 제한  
\* 2015년 4월 1일부터는 동영상 사이트의 해외 영화·드라마 수입규제 실시

**[조제분유관련 규제강화]**

- 올해 10월 1일부로 해외생산업체 등록·라벨규정 등을 강화하고 1개사당 3개 브랜드, 9개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수입제품이 70% 이상인 중국조제분유시장에서 간접적인 수입규제 정책으로 가능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6년 6월 30일 기준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1건으로, 11건 모두 반덤핑 조치이며 9건은 규제 시행 중이고, 2건은 조사 진행 중으로 품목별로는 화학 7건, 섬유 2건, 철강금속 1건, 기타 품목 1건임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명	HS코드	유형	품목분류
방향성 전기강판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7225.11.00 7226.11.00	반덤핑	철강 및 금속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섬유 (Polyacrylonitrile Fiber or Acrylic Fiber)	5501.3000.10 5503.3000.10 5506.3000.10		섬유
폴리실리콘 (Polysilicon)	2804.6190		화학
테레프탈산 (TPA: Terephthalic Acid)	2917.3611 2917.3619		
아디프산 (Adipic Acid)	2917.12		
아세톤 (acetone, Dimethyl ketone 또는 2-Propanone)	2914.1100		
비스페놀A (Bisphenol-A)	2907.2300		
ECH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2910.3000		
PVC (Polyvinyl chloride)	3904.1000		
광섬유(Dispersion Unshifted Single-Mode Optical Fiber)	9001.1000		기타
폴리우레탄 및 스판덱스	5402.4410 5402.4900 5402.6920		섬유

자료: 코트라(2016년), 2016년 상반기 대한수입규제 동향과 향후전망

- ⑨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며,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⑩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하여 보조금액에 해당 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 ⑪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하여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하나임